

믿음·헌신...한파 속 '더 끈끈한 팀' 만든다

광주FC 창원서 1차 동계훈련 기초체력·근력강화·소통 초점 이정효 감독 "새 팀 만들 것"

기초 체력과 근력 강화, 그리고 소통. 경남 창원에서 진행중인 광주FC 1차 동계훈련 키워드다. 올 시즌 '승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광주FC는 지난 3일부터 창원축구센터에서 1차 동계훈련 중이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이정효 감독은 선수단의 기초 체력 및 근력 강화, 지구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공식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감독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 선수단과의 소통이다. 선수단과 대화를 통해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팀을 위한 헌신'을 한마음으로 만들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강등이라는 결과로 인해 팀

어진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생각보다 훈련 분위기는 좋다. 승격의 경험을 가진 고참 선수들이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체제의 광주는 '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한다. 더 끈끈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 훈련이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좋다. 윤보상, 윤영국, 이한동 등이 팀을 떠났지만 이찬동, 이한샘, 김종우 등 주축 선수들이 팀을 잡고 있으며 김경민, 하승은, 문상윤 등 K리그 내 알짜배기 자원이 팀에 합류하면서 '팀 이정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큰 틀에서 어떤 축구를 구사할 것인지에 대해 선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시즌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힘든 훈련과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에 더 힘이

난다"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 기존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의지 또한 남다르다.

베테랑 수비수 이한샘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팀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해 미안함이크다. 그래서 올 시즌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며 "후배들과 절치부심해 반드시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어느덧 프로 3년 차를 맞은 공격수 허윤은 "지난 시즌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기대에 못미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올해는 더 성장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FC는 오는 15일까지 창원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한 뒤 17일부터 29일까지 벌교 일대에서 2차 전지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이정효 광주FC 감독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광주FC는 오는 14일까지 창원에서 1차 동계훈련을 할 계획이다. /광주FC 제공

"태극마크 단 만큼 죽기 살기로 뛰어야죠"

벤투호 첫 발탁 광주FC 엄지성 터키 안탈리아서 전지훈련 소화 "물모델 손흥민 가장 보고파"

생애 처음으로 축구 대표팀에 발탁된 엄지성(20·광주)이 경쟁한 형들 사이에서도 제 몫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엄지성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에 처음 소집돼 터키 안탈리아에서 1월 전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엄지성은 11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어린 나이에 좋은 기회를 얻게 됐는데, 운동장에 들어가면 다 같은 선수다. 태극마크를 단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죽기 살기로 뛰고 나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24일까지 터키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벤투호는 아이슬란드(15일), 몰도바(21일)와 평가전을 치른 뒤 레바논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을 위해 레바논 베이루트로 이동한다.

이후에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이동해 다음 달 1일 시리아와 8차전을 치른다.

이번 훈련이 K리그와 J리그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벤투 감독은 평가전에서 엄지성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대표팀 형들과 함께 훈련하게 된 엄지성은 "워낙 K리그에서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들이라 긴장도 되지만, 배워서 갈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전 기회를 얻는다면) 개인적

인 역량보다는 팀적으로 활약하고 싶다. 벤투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수행하거나 팀에 녹아드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엄지성은 가장 만나고 싶은 대표팀 선수로는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을 꼽았다.

이전부터 손흥민이 롤모델임을 밝혀왔던 그는 "축구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가장 보고 싶었다.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며 축구를 하고 있다. 공이 없을 때 움직임과 스피리트 능력을 닮고 싶다"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막상 만나면 말을 못 할 것 같다"고 설레는 마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온 만큼 좀 바꿔야 할 것 같다. 형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엄지성은 지난해 3월에는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에 발탁된 바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동갑내기 정상빈(수원)이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올해는 반대다. 엄지성이 A대표팀에 소집됐고, 정상빈은 이달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팀에 합류했다.

정상빈은 전남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엄지성의 성인 대표팀 발탁이 자신에게 자극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엄지성은 "(정)상빈이가 뽐냈을 때 내가 축하했고, 내가 뽐냈을 때 상빈이가 축하해 줬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벤투 감독은 엄지성의 어떤 능력을 봤을까. 엄지성은 "그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에 처음 소집돼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 훈련을 소화 중인 엄지성.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라 잘 모르겠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묻는 말에는 "어느 각도에서든 슈팅을 때릴 수 있고, 프리킥 등 세트피스에서도 장점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9일 출국해 터키에 도착한 대표팀은 현지 숙소에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10일 첫 훈련에 나섰다.

실내에서 몸을 풀 선수들은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1시간 20분가량 야외 훈련을 진행하며 회복 훈련과 미니 게임 등을 소화했다.

/연합뉴스

김연경 중국리그 일정 마치고 귀국

휴식하며 거취 고민

김연경(33·중국 상하이)이 두 달여의 짧은 중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연경은 지난 10일 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당분간 국내에서 휴식하며 거취를 고민할 예정이다.

11월 27일 개막한 2021-2022 중국여자배구 슈퍼리그에서 상하이는 3위를 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팀의 마지막 경기였던 4일 라오닝과의 3위 결정 2차전에서 20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세트 스코어 3-0(25-19 25-17 25-14) 승리를 이끌었다.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한 김연경은 휴식을 취하고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중국여자배구 슈퍼리그는 이번 시즌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광둥성 장먼시에 모여 경기하는 '버블 형태'로 치렀다.

김연경도 경기장과 숙소만 오가는 '격리'에 가까운 상태로 지냈다.

외국인 선수를 한 명만 내보내는 새로운 규정에 출전할 수 있는 경기가 줄었지만, 김연경은 세트당 득점 2위(5.56점), 리시브 1위(성공률 75%)에 오르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김연경과 상하이의 계약은 곧 종료한다.

이제 김연경의 거취에 세계 여자배구의 시선이 쏠린다.

김연경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개다. 충분한 회복을 원한다면 이번 겨울은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두고 2022-2023시즌에 팀



한국 여자배구 간판 김연경이 중국여자배구 슈퍼리그를 마친 뒤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팀을 알아볼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미국 혹은 유럽 진출이다.

3월에 개막해 두 달 동안 경기하는 미국프로배구는 '홍행'을 위해 김연경 영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을 한창 진행 중인 유럽리그 진출도 가능하다.

한국프로배구 V리그는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2021-2022시즌에 될 수 없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에는 V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김연경은 V리그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다. 2022-2023시즌 V리그에서 뛰려면 흥국생명과의 계약해야 한다. /연합뉴스



호주오픈 대비 맹훈련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2위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가 11일 호주 멜버른의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연습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호주오픈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AFP·연합뉴스

임성재 시즌 두 번째 우승 도전

14일 개막 소니오픈 출전 세계랭킹 1~9위 결장 호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첫 대회에서 공동 8위에 올라 첫 단추를 잘 끼운 임성재(24)가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14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PGA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50만 달러)에 출전한다.

2021-2022시즌 들어 4개 대회 연속 2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려 안정된 경기력을 과시한 임성재는 PGA투어닷컴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 15명 가운데 5위에 꼽힐 만큼 우승 기대가 높다.

임성재는 11일 발표한 세계랭킹에서도 종전 26위에서 24위로 2계단 뛰었다.

PGA투어닷컴은 임성재가 앞서 3차례 소니오픈에서 한 번도 컷 탈락이 없었고, 평균 타수가 67.83타로 코스와 잘 맞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 코스는 임성재의 경기 스타일과 잘 맞는다.

지난주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가 열린 카팜루아 플래티넘 코스는 페어웨이가 넓고 길어 장타자의 놀이터라면,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은 전장이 짧은 대신 페어웨이



임성재

가이주 잡다.

지난 10년 동안 치러진 소니오픈 평균 페어웨이 안착률이 55%에 불과하다.

굳이 드라이버를 잡지 않아도 되는 파 4홀이 많다.

한마디로 아이언샷을 잘 치는 선수가 유리하다는 뜻이다.

임성재는 PGA투어 그린 적중률 12위(76.38%)에 올라 있을 만큼 아이언을 잘 다룬다.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 이어 시즌 2승을 노리는 임성재는 "스윙을 바꿨는데 실수가 줄고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세계랭킹 1~9위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호재다.

온 람(스페인), 폴린 모리카와, 더스틴 존슨, 패트릭 캔틀레이, 저스틴 토머스, 잰디 쇼펠레, 브라이언 디셈보(이상 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이 모두 소니오픈은 건너뛴다.

디셈보는 애초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손목 부상으로 기권했다.

김시우(27)와 이경훈(31)도 임성재와 함께 우승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